

##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6개 외국인 집단(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과 새터민)에 대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82명의 대학생들에게 개방형질문을 하고 이들의 응답을 내용분석한 결과, 한국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경험은 외모 및 신체적 매력, 성격, 생활습관, 한국인과의 관계, 유능성,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 등 6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6개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을 그 내용에 기초하여 구성한 다음, 300명으로부터 6개 집단에 대한 평가자료를 수집하였다. 그것을 요인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은 매력적 외모, 아담한 외모, 부정적 외모의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남성성과 이기주의 및 여성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은 세속적 태도, 성실한 태도, 소극적 태도 및 집단주의로 요인구조가 나타났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우월감, 거리감, 열등감, 우호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유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특기 및 재능과 경제적 능력으로 요인구조가 나타났고, 외국인의 국가적 배경 및 환경조건에 대한 인식에서는 국가적 조건과 사회문제로 나타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요인들을 총 18가지로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요인들의 점수에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외국인 집단의 특징적 양상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 편견, 미국인, 동남아인, 일본인, 중국인, 조선족, 새터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전체 국민의 약 10%가량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영숙, 제롬 글랜, 테드 고든, 2008).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이주민에 대하여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가량으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주민과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겠는가?”나 “이주민을 고용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30% 안밖의 낮은 응답을 보여 이주민에 대하여 이중적이거나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택 등, 2007).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이중적이거나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사회가 문화적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8-B00093).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다양성이 낮고, 구성원들이 매우 동질적인 사회로 이루어졌다는 점, 한국문화의 '우리끼리 문화'의 배타주의,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육체노동의 천시와 적당주의,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의사소통의 문제(유명기, 1997; 정진경, 양계민, 2004),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정체성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장승진, 2010).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 급격한 외국인 유입을 통한 문화접변의 시기에 있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문화의 특수성에 관한 문제점들은 오히려 부수적인 현상으로,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타문화를 처음 받아들이는 시기에는 마찰과 갈등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다. 선진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수백 년 동안의 인종갈등문제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반성과 대처 양식 또한 장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왔다.

반면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온 경험이 전무해, 자신과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엄한진, 2006; 곽준혁, 2007; 이해경, 2007; 윤인진, 2008). 즉,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을 통해 타문화가 전달되는 최근의 사회구조적인 현상은 한국인에게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점은 한국인들에게는 외국인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만한 충분한 인식 및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문화 접촉으로 발생한 외국인과의 갈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한국사회에 존재할 것이라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관련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살펴볼 수 있다.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다양한 집단 구성원의 행동이나 특징에 대한 의견이나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Hilton & von Hippel, 1996), 인지심리학자들은 고정관념이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

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의 인지적 메카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Hamilton, 1979; Taylor, 1981). 이러한 입장에서 고정관념은 기본적인 인지적 구조 및 과정과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상적인 인지과정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심리학자들은 고정관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개인이 속한 문화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의 신념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Bilgic, 1976; Brown, 1988; Jones, 1997). 이러한 고정관념의 두 가지 속성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곧 외국인 집단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믿고 있는 신념체계 즉 고정관념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인식은 개개인의 특수한 경험 속에서의 개별화된 인식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경험에 따른 한국인의 일반화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적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형성되기 보다는, 대중적인 매체 등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인식은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한국인의 다문화 경험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의 서구 및 선진국 지향적인 태도를 밝히고 있다(임성택, 2003; 김상학, 2004; 유승무, 이태정, 2006;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예를 들어 김희자(2008)는 다양한 외국인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알아본 결과, 뚜렷한 백인 및 선진국 지향성과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을 확인하였으나, 중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선호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밖에 사회적 거리개념(Lauman, 1965, Babbie, 2006)을 사용하여 소수 인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김상학, 2002; 김진희, 2007; 김희자, 2008;

인태정, 2009; 황미애, 2009), 다문화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상학, 2002; 임성택, 2003; 김희자, 2008; 양계민, 2009; 인태정, 2009). 이는 청소년 세대는 앞으로 세계화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어느 세대보다 다문화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의식교육이라는 '세계시민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임성택, 2003).

그런데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경험을 살펴보기보다는 친근감이나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개념을 통한 차별이나 편견적 태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태도 연구들은 구체적인 행동의 측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보다 실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태도가 형성되기 보다는, TV나 여론 매체 등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나 고정관념이 먼저 형성이 되어 있다(김희자, 2009).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인 경험이 아닌,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한국인의 제한된 외국인과의 상호작용 범위를 고려할 때, 고정관념 및 인식이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타나는 측면 보다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나 여론으로서 나타나는 측면의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에 못지않게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 경험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반영된 인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모든 다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국내의 연구로, 임성택(2003)은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대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매력성, 우수성, 합리성, 유순성의 4가지 요인에 관한 총 13가지 형용사 척도를 바탕으로 각 외국인 별로 한국인의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백인에 대해서는 우수하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평가한 반면, 흑인집단은 열등하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차별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복잡한 인지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13개의 형용사 단어로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형용사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고, 다양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한국인이 각 외국인 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집단으로 미국인과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및 새터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안전부(2009)에 의하면 2009년 현재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71%(전체 40.1%)를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국내 외집단은 현실적으로 조선족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인이 21.2%, 미국인이 5.4% 일본 2.4% 기타 14.5%로 집계되고 있으며, 새터민은 약 1만 5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미국인과 일본인 중국인과 동남아인들은 한국인의 중요한 인식경험의 대상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조선족과 새터민의 경우 직접적인 경험의 형태는 많다고 볼 수 없지만, 한국인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인식경험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경험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외국인 집단 별로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지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인은 미국인과 미국문화에 대해 전통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최근의 정치적 갈등상황이 그들의 인식에 반영될 수 있다. 특히 광우병사태와 촛불집회 이후에 미국정부에 대한 불신은 미국인 전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인의 수준에서 서구인들

을 포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단지 백인선호주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인의 경우 국내 외국인 비율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외국인 집단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인에 대한 오늘날 한국인의 인식이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경험의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은 피상적이거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 중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적 경험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음으로 동질적 인식에서 비롯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후진국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지는 그들의 부정적 이미지와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에 대한 문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인의 외국인 비율 중에서 조선족의 비율이 7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중국인과 분리하여 조선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의 특성상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중국인과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동남아인의 경우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결혼이주민의 숫자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서 현재 21.2%의 국내거주 외국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짧은 시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동남아인과 이들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인식은 매우 빈약하다. 또한 동남아인들이 두 번째로 높은 국내 외국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인식경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은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한국문화에서 긍정적 인식의 가능성과 반세기 동안의 이질적인 이태올로기에 의하여 부정적 인식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호남 사람들과 비교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2007). 또한 미래의 통일 후 상황을 예견하기 위한 전초 과정으로서, 새터민과 한국인의 통합을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른 국가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먼저 주요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인식 경험, 즉 고정관념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각 국적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양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인식경험의 내용을 연구 1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연구 2에서는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인식 경험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질적내용분석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범주화하여 인식경험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방법

### 연구대상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4월에서 2010년 5월에 걸쳐 총 98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응답 16개를 제외하고 총 82개를 분석하였다. 이중에 남자는 37명(45.12%), 여자는 45명(54.88%)이었다.

### 연구절차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대해 응답하게 한 다음, “당신 혹은 한국인은 각 외국인 및 새터민에 대하여 대체로 어떤 긍정 및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렇게 참여자 외에 한국인의 일반적인 인식을 함께 묻는 것은 참여자들이 편견적 내용을 응답함에 있어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덜 영향을 받도록

표 1. 조사대상자의 외국인 직접 경험 정도 응답빈도

범주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
가족 및 배우자	2	2	0	2	0	0
애인이나 절친한 친구	1	2	2	0	0	0
직장, 학교에서 동료	12	2	16	2	7	2
이웃이나 통성명하는 정도	12	3	6	7	2	0
대인관계를 가진 경험 없음	55	73	58	71	73	80
전체	82	82	82	82	82	82

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얻은 내용에 대하여 분석단위를 문장이나 단락에 내포된 주제를 분석단위로 하는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본질적으로 텍스트의 외현적이고 현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이나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Mayring, 2000).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명의 연구자로부터 평정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값은 .87 이었다. 그리고 내용분석을 통해서 구성된 범주들에 대하여 각 외국인 집단 및 긍정 부정 요인에 따라 반응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 결과 및 요약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외국인과 직접 경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표 1).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직접적인 경험은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경험은 대체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매체나 문화 상품, 외국산 유·무형 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내용분석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와 1개의 기타범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응답내용의 질적 의미와 주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응답은 완전히 상호 배타적인 단일한 범주로 분류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었

다. 이러한 경우에 언어의 다의적이고 중의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응답자가 말한 핵심적인 의미를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다의적인 내용은 해당 범주에 동시에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각 범주의 상호배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범주에 대한 정의를 연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하고,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분석범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6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표 2). 먼저, 외모 및 신체적 매력의 범주에서 외국인의 신장이나 체격, 목소리, 냄새와 같은 구체적인 응답내용이 있었고, 분위기나 전반적인 이미지, 성격매력에 관한 응답도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범주로 외국인에 대한 내적 특성을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생활습관은 외국인에 대한 평가들 중에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부지런함, 친절함 행동 등과 같은 경우 성격적인 측면과 연관이 깊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의미가 구체적인 행위,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잘 웃음과 같은 응답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생활습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한국인과의 관계에는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하는 태도, 역사 및 정치적 관계 등에 관련된 답변 등이 있었다. 유능성의 범주에는 외국인의 능력에 관한 부분으로 주로 경제적 능력에 관한 응답이 많았고, 지적능력, 기술력 등에 관한 응답이 있었다.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은 국가에 대한 강대·약소국, 선진·후진국, 각 국가별 역사적 특징 등의 이미지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긍정·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문의 의도와 관련 없는 응답을 한 경우와 잘 모르겠다고 밝힌 응답들을 기타범주로 분류하였다.

표 2. 외국인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인식에 대한 대표적인 기술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범주	미국인		동남아인	
외모	체격이 좋은, 하얀 피부, 이목구비	비만이 많음, 땀냄새, 털이 많음.	이목구비, 귀여움, 날씬함.	땀냄새, 키가 작음, 검은 피부.
성격	개성적인, 자유로운, 개방적인.	독선적인, 개인주의, 우월의식.	착함, 순박함, 정이 많음.	게으름, 의존적임.
생활습관	친절한 행동, 유머, 파티문화	인스턴트 식품, 예의없는 행동.	성실한 습관.	잘 안 씻는, 물려다님, 범죄.
한국인 관계	역사적으로 도움을 줌, 동맹국.	한국인을 무시함, 정치적 갈등.	노동력 제공, 한국인과 친근하다.	일자리 뺏음, 인종차별의 대상.
유능성	부유함, 머리가 좋은, 재능이 많음	일반인은 무식함, 단순한 사고.	일을 잘함.	멍청함, 가난함.
환경조건	강대국, 선진국, 문화강국	패권주의, 전쟁을 자주함, 범죄.	관광국, 결혼이민자, 값싼 노동력.	후진국, 불법체류, 자연재해.
범주	일본인		중국인	
외모	단아함, 귀여움, 한국인과 비슷.	작은 체구, 덧니, 쪽발이.	몸매가 좋은, 비슷한 외모.	땀냄새, 시끄러운 목소리.
성격	친절함, 부지런함.	이중적인, 가식적인, 교활함.	결속력, 느긋한, 포용적인.	게으름, 장사꾼, 자만심.
생활습관	예의바른 행동, 깔끔한, 질서.	이지메, 은둔형 외톨이, 문란한 성	예의범절, 다양한 문화.	불결함, 사기, 거짓말, 유사품
한국인 관계	한국과의 교류, 선의의 경쟁.	역사왜곡, 역사문제.	저렴한 노동력과 상품제공.	역사적 갈등, 한국에서 범죄.
유능성	영리함, 아이디어, 부유함, 기술력	영어를 못함, 무식한 국민.	모방력, 다문화를 수용하는.	독창성이 없음, 저소득층이 많음
환경조건	선진국, 경제강국, 깨끗한 도시.	자연재해, 역사문제.	강대국, 자원과 큰 국토, 인구 많음	공해, 재해, 공산국가, 중화사상.
범주	조선족		새터민	
외모	한국인과 비슷함, 단아함.	세련되지 못함, 위축된 이미지.	비슷한 외모.	작은 체구, 세련되지 못한.
성격	착함, 성실함, 끈기있음.	자신감 없음, 정체성 없음.	용기있는, 끈기있는, 성실함.	의존적인, 폐쇄적인, 수동적인.
생활습관	근면 성실한 행동.	사기, 범죄, 거짓말.	생활력이 강한.	부적응적인, 현실도피.
한국인 관계	같은 핏줄, 동질의식.	일자리를 뺏음, 차별받는 대상.	같은 핏줄, 동질의식.	부담이 되는, 어울리기 어려운.
유능성	일을 잘함, 중국어 가능.	가난함, 경제적 무능력.	빠른 적응력, 대담함 행동.	가난한, 부적응적인.
환경조건	독립활동가의 후예, 역사적 시련.	이민자, 불법체류자.	같은 역사적 환경, 같은 민족.	공산주의, 간첩, 역사문제.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밝혀진 인식경험의 내용을 예비항목으로 선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식경험의 구

체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판단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국적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양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조사대상**

연구2에서는 서울에 소재하는 C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8월에서 2010년 9월에 걸쳐 총 300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응답 19개를 제외하고 총 281개를 분석하였다. 연구2에서는 6개의 외국인 집단에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야 하는 조사대상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설문1과 설문2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설문1에는 135명이 참여하였으며 남학생 73명(54.1%), 여학생 62명(45.9%), 학년별로는 1학년 40명(29.6%), 2학년 19명(14.1%), 3학년 40명(29.6%), 4학년 36명(29.7%)이었다. 설문2에는 146명이 참여하였으며, 남학생 76명(52.1%), 여학생 70명(47.9%), 학년별로는 1학년 74명(50.7%), 2학년 28명(19.2%), 3학년 17명(11.5%), 4학년 27명(18.6%)이었다.

**연구절차**

연구1에서 밝혀진 6가지 범주에 대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예비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연구자 중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이 언급한 특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내용분석 결과 추출된 210개의 항목 중에서 158문항이 선정되었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외모 및 신체적 매력 18문항, 성격 50문항, 생활습관 38문항, 한국인과의 관계 24문항, 유능성 16문항,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을 묻는 12문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항들 중에서 외모 및 신체적 매력, 성격,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sup>1)</sup>을 묻는 총 80문항을 설문1로 구성하였고, 생활습관, 한국인과의 관계, 유능성을 묻는 총 78문항을 설문2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에게 각 집단을 7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에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자료를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별로 국가 간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

1) 조선족과 새터민의 경우 그 출신배경을 묻는 의미에서 각각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Duncan으로 사후검증하였다.

**결과 및 요약**

**외국인의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 대한 한국대학생들의 인식**

한국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비문항에서 선정된 18개의 문항에 대한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로 요인회전을 하였으며, 문항의 문항-총점감 상관이 .40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총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 문항을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된 문항들의 요인구조 및 설명량, 고유치, 신뢰도 값 등을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록 표 1을 보면, 요인 1은 외국인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매력에 관한 문항들이 부하되어서 '매력적 외모'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눈에 띄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동양적이고 소박한 매력이라는 의미에서 '아담한 외모'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 중에서 부정적인 특징을 의미함으로 '부정적 외모'라고 명명하였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별 평균 점수를 각 외국인별로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림 1).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사후검증 결과, 매력적 외모에 대하여 미국인이 가장 높은 반면에, 중국인, 조선족 새터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담한 외모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가장 높고, 중국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외모의 측면에서는 미국인과 중국인, 동남아인이 높게 나타났고, 일본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외국인의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 미국인에게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아담하다고 인식하며, 그리고 중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표 3. 외국인의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	F값
매력적외모	4.60(.82) <sup>a</sup>	3.67(.84) <sup>b</sup>	3.28(.86) <sup>c</sup>	3.49(.78) <sup>b</sup>	3.20(.80) <sup>c</sup>	3.09(.86) <sup>c</sup>	61.17***
아담한외모	2.70(1.06) <sup>d</sup>	4.29(1.12) <sup>a</sup>	3.55(1.20) <sup>c</sup>	3.96(1.10) <sup>b</sup>	3.91(1.00) <sup>b</sup>	3.76(1.09) <sup>bc</sup>	33.38***
부정적외모	4.48(1.04) <sup>a</sup>	3.18(1.34) <sup>c</sup>	4.55(1.29) <sup>a</sup>	4.37(1.06) <sup>a</sup>	3.76(1.06) <sup>b</sup>	3.64(1.09) <sup>b</sup>	30.96***

\*\*\*  $p < .001$  알파벳은 Duncan으로 사후검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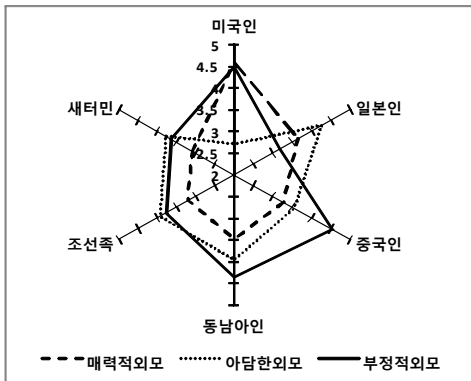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의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

외국인의 성격에 대한 한국대학생들의 인식

한국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인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비문항에서 선정된 50개의 문항에 대한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로 요인회전을 하였으며,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인 .40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총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42문항을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된 문항들의 요인구조 및 설명량, 고유치, 신뢰도값 등을 부록 표 2에 제시하였다. 부록 표 2를 살펴보면, 요인 1에서는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과 같은 남성적인 느낌의 문항들이 부하되어서 ‘남성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인 2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들과 이기주의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어서 ‘이기주의’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3에서는 소극적이고 안정적이며 여성적인 느낌을 갖는 성격 특성들이 부하되어서 ‘여성성’이라고 하였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별 평균 점수를 각 외국인별로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림 2).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사후검증결과 남성성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이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적인 특성에서는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미국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기주의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았고,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이 점수가 낮았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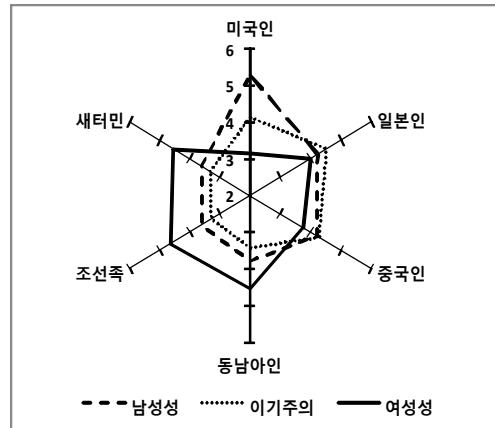


그림 2. 외국인의 성격에 대한 인식

표 4. 외국인의 성격에 대한 인식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	F값
남성성	5.28(.80) <sup>a</sup>	4.25(.73) <sup>b</sup>	4.21(.66) <sup>b</sup>	3.78(.65) <sup>c</sup>	3.61(.72) <sup>c</sup>	3.60(.75) <sup>c</sup>	104.29***
이기주의	4.13(.79) <sup>b</sup>	4.52(.79) <sup>a</sup>	4.27(.89) <sup>b</sup>	3.44(.82) <sup>c</sup>	3.29(.91) <sup>c</sup>	3.30(.85) <sup>c</sup>	40.09***
여성성	3.14(.69) <sup>d</sup>	4.00(.73) <sup>b</sup>	3.77(.73) <sup>c</sup>	4.53(.76) <sup>a</sup>	4.66(.92) <sup>a</sup>	4.55(.80) <sup>a</sup>	46.92***

\*\*\*  $p < .001$  알파벳은 Duncan으로 사후검증한 것임.



표 5. 외국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	F값
세속적태도	4.16(.77) <sup>a</sup>	4.16(.90) <sup>a</sup>	4.26(1.01) <sup>a</sup>	3.84(.83) <sup>b</sup>	3.49(.97) <sup>c</sup>	3.23(.85) <sup>d</sup>	31.45 <sup>***</sup>
성실한태도	4.29(.70) <sup>b</sup>	5.00(.90) <sup>a</sup>	3.12(.90) <sup>e</sup>	3.51(.75) <sup>d</sup>	4.03(.69) <sup>c</sup>	4.23(.72) <sup>b</sup>	101.92 <sup>***</sup>
소극적태도	2.57(.83) <sup>d</sup>	3.78(.97) <sup>c</sup>	3.93(.90) <sup>bc</sup>	4.12(.80) <sup>b</sup>	3.96(1.12) <sup>bc</sup>	4.64(.90) <sup>a</sup>	79.4 <sup>***</sup>
집단주의태도	3.49(.95) <sup>d</sup>	4.52(.99) <sup>b</sup>	4.76(.97) <sup>a</sup>	4.49(.90) <sup>b</sup>	4.21(1.08) <sup>c</sup>	4.39(.93) <sup>bc</sup>	30.16 <sup>***</sup>

\*\*\*  $p < .001$  알파벳은 Duncan으로 사후검증한 것임.

미국인은 남성적이며 여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에 대해서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이지 않으며 이기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일본인은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였으며, 중국인에 대해서는 특징적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 외국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한국대학생들의 인식

한국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비문항에서 선정된 38개의 문항에 대한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로 요인회전을 하였으며,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이 .40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총 4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4문항이 선택되었다. 최종 선택된 문항들의 요인구조 및 설명량, 고유치, 신뢰도값 등을 부록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록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요인 1은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 부정적인 생활습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인명을 '세속적 태도'로 하였다. 반면에 요인 2는 규범적이고, 근면하며, 올바른 습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으로 삶에 대한 성실함을 나타내는 '성실한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에서 소극적인 태도나 부적응적이며 억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소극적 태도'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게 판단되었다. 요인 4에서 단결과 협동,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나타냄으로 '집단주의적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별 평균 점수를 각 외국인별로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림 3).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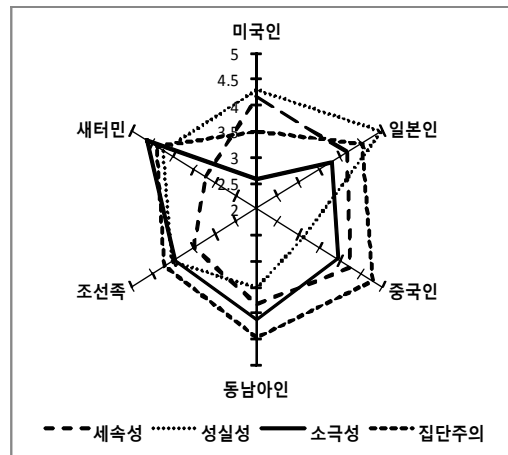


그림 3. 외국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

의미했다. 사후검증결과, 세속적인 생활습관에 대해서 미국인과 일본인, 중국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터민이 낮게 나타났다. 성실한 습관에 대해서 일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국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극적인 모습에서는 새터민이 가장 높았고, 미국인이 가장 낮았다. 집단주의적인 모습에서 중국인이 가장 높았고, 미국인이 가장 낮았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미국인은 세속적이고, 소극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일본인은 세속적이지만 성실한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인은 세속적이고 성실하지 않으며, 집단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였고, 새터민에 대해서 세속적이지 않으며, 소극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 외국인과 한국인의 관계에 대한 한국대학생들의 인식

한국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비문항에서 선

표 6.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	F값
우월감	4.22(.83) <sup>a</sup>	4.11(1.09) <sup>a</sup>	3.72(.91) <sup>b</sup>	3.29(.78) <sup>c</sup>	3.17(1.02) <sup>c</sup>	2.86(.82) <sup>d</sup>	51.29 <sup>***</sup>
거리감	3.79(.98) <sup>cd</sup>	3.55(1.19) <sup>d</sup>	4.17(1.06) <sup>b</sup>	4.43(.99) <sup>a</sup>	3.96(1.14) <sup>bc</sup>	4.09(1.31) <sup>b</sup>	10.93 <sup>***</sup>
열등감	3.08(1.09) <sup>d</sup>	4.20(1.11) <sup>c</sup>	4.89(.94) <sup>a</sup>	5.04(1.03) <sup>a</sup>	4.27(.37) <sup>c</sup>	4.55(1.20) <sup>b</sup>	55.30 <sup>***</sup>
우호감	3.98(.70) <sup>a</sup>	3.89(.93) <sup>a</sup>	3.62(.90) <sup>b</sup>	3.46(.73) <sup>b</sup>	3.95(.97) <sup>a</sup>	4.10(.94) <sup>a</sup>	11.34 <sup>***</sup>

\*\*\*  $p < .001$  알파벳은 Duncan으로 사후검증한 것임.

정된 24개의 문항에 대한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로 요인회전을 하였으며, 문항의 문항-총점감 상관인 .40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총 4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최종 선택된 문항들의 요인구조 및 설명량, 고유치, 신뢰도값 등을 부록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요인 1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모습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한국인이 열등감을 느끼는 문항이 부하되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것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서는 부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에게 낯설고 어색한 느낌을 주는 문항들을 '거리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서 한국인이 그들을 무시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 문항들을 묶어서 '열등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한국인과 호의적이거나 친밀해지고 싶은 느낌을 가지는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되어 있어 '우호감'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별 평균 점수를 각 외국인별로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그림 4).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사후검증결과, 한국인에게 우월감을 느낀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미국인과 일본인이 높았고, 새터민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한국과 거리감을 느끼는 집단으로 동남아인이 가장 높았고, 일본인이 가장 낮았다.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느낀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중국인과 동남아인이 높았고, 미국인이 가장 낮았다. 한국인과 우호감을 느끼는 집단은 미국인, 일본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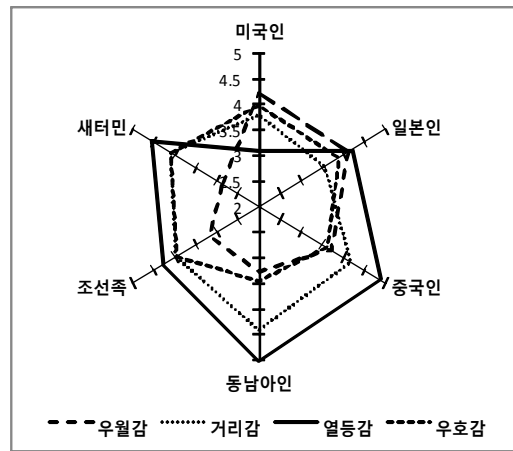


그림 4.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선족, 새터민이 높았고, 중국인과 동남아인이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미국인과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우월감을 느낀다고 인식하지만, 우호감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인과 동남아인은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느낀다고 인식하며, 우호감을 느끼지 않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새터민에 대해서는 우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외국인의 유능성에 대한 한국대학생들의 인식**

한국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유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비문항에서 선정된 16개의 문항에 대한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로 요인회전을 하였으며, 문항의 문항-총점감 상관인 .40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총 2개의 요인이

표 7. 외국인의 유능성에 대한 인식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	F값
특기및재능	4.52(.83) <sup>a</sup>	3.81(.85) <sup>b</sup>	3.81(.83) <sup>cd</sup>	3.38(.76) <sup>d</sup>	3.69(1.00) <sup>bc</sup>	3.42(.84) <sup>d</sup>	35.45 <sup>***</sup>
경제적능력	4.30(.74) <sup>b</sup>	4.91(.90) <sup>a</sup>	4.06(.99) <sup>cd</sup>	3.96(.92) <sup>d</sup>	4.19(.92) <sup>bc</sup>	3.90(.86) <sup>d</sup>	24.76 <sup>***</sup>

\*\*\*  $p < .001$  알파벳은 Duncan으로 사후검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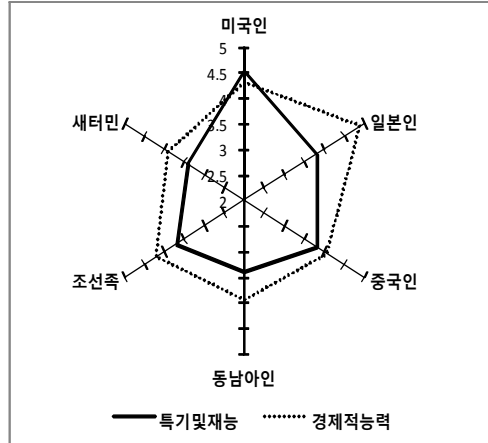


그림 5. 외국인의 유능성에 대한 인식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3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최종 선택된 문항들의 요인구조 및 설명량, 고유치, 신뢰도값 등을 부록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표를 살펴보면, 요인 1은 외국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서 특기나 재능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기 및 재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 부하된 문항들은 외국인의 경제적 문제에 연관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별 평균 점수를 각 외국인별로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그림 5).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사후검증 결과 외국인의 특기 및 재능의 측면에서는 미국인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중국인, 동남

아인, 새터민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능력의 측면에서는 일본인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중국인, 동남아인, 새터민이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미국인은 특기와 재능이 많다고 인식하였고, 일본인은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식하였다. 그에 비해서 중국인, 동남아인, 새터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외국인의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에 대한 한국대학생들의 인식**

한국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비문항에서 선정된 12개의 문항에 대한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축분해법으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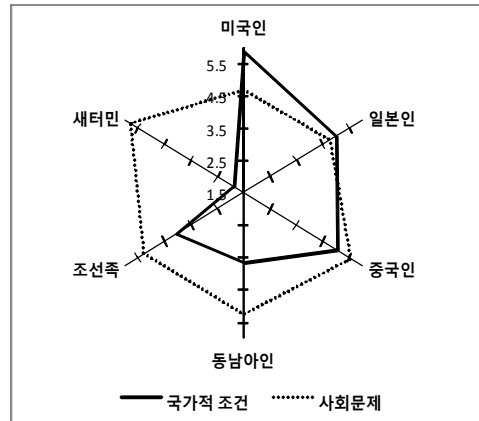


그림 6. 외국인의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에 대한 인식

표 8. 외국인의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에 대한 인식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	F값
국가적 조건	5.88(.78) <sup>a</sup>	5.00(.81) <sup>b</sup>	5.05(.90) <sup>b</sup>	3.68(.80) <sup>d</sup>	4.03(1.47) <sup>c</sup>	1.85(.70) <sup>e</sup>	301.09 <sup>***</sup>
사회문제	4.67(.98) <sup>c</sup>	4.77(1.06) <sup>c</sup>	5.59(.94) <sup>a</sup>	5.24(1.08) <sup>b</sup>	5.27(1.14) <sup>b</sup>	5.79(1.21) <sup>a</sup>	22.76 <sup>***</sup>

\*\*\*  $p < .001$  알파벳은 Duncan으로 사후검증한 것임.

을 추출하였고, varimax로 요인회전을 하였으며, 문항의 문항-총점감 상관이 .40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총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9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최종 선택된 문항들의 요인구조 및 설명량, 고유치, 신뢰도값 등을 부록 표 6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외국인의 국가이미지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며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배경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가적 조건'이라고 하였다. 요인 2는 외국인의 배경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회문제'라고 명명하였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별 평균 점수를 각 외국인별로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그림 6).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외국인의 국가적 조건에 대해서 미국인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새터민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국가의 사회문제에서 중국인과 새터민이 높았고, 미국인과 일본인이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미국인과 일본인의 국가적 인 조건이 좋으며, 사회문제는 적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중국인은 사회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새터민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며, 사회문제도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 종합논의

한국인의 경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 새터민에 대하여 한국대학생들의 인식내용을 알아보았다. 먼저 연구 1에서 82명의 한국대학생들에게 개방형질문을 하고 이들의 응답을 내용분석한 결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경험은 외모 및 신체적 매력, 성격, 생활습관, 한국인과의 관계, 유능성,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의 6가지 범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각 범주에 대한 요인구조를 살펴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은 매력적 외모, 아담한 외모, 부정적 외모의 요인구조로 나타났고, 외국인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남성성과, 이기주의, 여성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

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은 세속적 태도, 성실한 태도, 소극적 태도 및 집단주의로 요인구조가 나타났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우월감, 거리감, 열등감, 우호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유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특기 및 재능과 경제적 능력으로 요인구조가 나타났고, 외국인의 국가적 배경 및 환경조건에 대한 인식에서는 국가적 조건과 사회문제로 나타나서,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요인들을 총 18가지로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18가지 요인들의 점수를 각 국가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국가별 특징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인에 대해서는 외모와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부정적 외모의 특성도 나타나는 등, 양가적인 측면을 보였다. 성격에서는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이며 활발한 남성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여성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세속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소극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한국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며,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감과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어서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중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유능성의 측면에서 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는데, 여러 면에서 개인적인 특기나 재능 및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능력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국가적 배경 및 환경조건에서도 선진국과 강대국을 나타내는 국가적 조건이 긍정적으로 인식된 반면에, 사회문제는 적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인은 미국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세속적인 생활습관이나 한국인을 비하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인에 대해서는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 아담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 이미지가 적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성격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생활습관에서 부정적 생활습관으로서 세속적 태도와 긍정적 생활습관으로서 성실한 태도가 동시에 높아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등, 한국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며, 비교적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밀감과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여서 미국인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유능성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여러 면에서 개인적인 특기나 재능 및 장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경제적인 능력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서 미국인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배경 및 환경조건에서도 선진국과 강대국을 나타내는 국가적 조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사회문제는 적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미국인에 대한 인식과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성격적인 면과 외모에서만 미국인과 다르게 동양의 정적인 특성과 아담한 외모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세속적인 생활습관이나 한국인을 비하하는 태도,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성향 등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서 매력적이지 않고 부정적 외모의 특성은 높게 인식되었다. 성격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습관에서는 중국인이 세속적이고 성실하지 않으며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유능성에서 개인적인 재능이나 특기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에서 강대국이라는 의미에서 국가적 조건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및 고정관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서, 부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성격에서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이지 않으며, 이기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면서도 선량한 느낌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생활습관에서는 비교적 세속적이고 성실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면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인과 거리감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한국인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능성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특기 및 재능이나 경제적 능력의 면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동남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많이 나타났으며, 성격적인 면에서 소극적이고 선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사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부정적인 외모로도 인식하지 않았다. 성격에서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이지 않으며, 이기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서, 전반적으로 동남아인과 유사하게 소극적이면서도 선량한 느낌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생활습관의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집단보다 덜 세속적이고 덜 집단주의적으로 나타난 점 이외에 그다지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인과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외에 특징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능성과 국가 배경 및 환경조건에서도 모두 다른 국가집단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한국인은 조선족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선량한 이미지 이외에 그다지 두드러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외모 및 신체적 매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부정적인 외모로도 인식하지 않아서, 조선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격에서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이지 않으며, 이기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서,

전반적으로 동남아인, 조선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생활습관의 면에서는 세속적이지 않으며, 성실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소극적인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소극적이지만 긍정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인에 대하여 비교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한국인과 우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능성의 면에서 특기 및 재능과 경제적 능력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새터민의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에서는 그들의 출신을 북한으로 보았을 때, 국가적 조건이 불리하고 사회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은 새터민에 대하여 착하고 성실하며 정이 많은 여성성이 강한 집단으로 인식하면서도 한국인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무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미국인과 일본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범주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두 국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선진국과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로서 한국인의 인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진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선행 연구들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인이 한국인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비하하며,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생활습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인에 대해서 거리감 및 적대감을 보이고, 중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김희자(2008)의 연구와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계하지만,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우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오히려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리감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우수하다고 인식하며, 중국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 임성택(2003)의 연구와 일관적인 면이 있다. 그러므로 김희자(2008)의 연구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태도

가 당시의 국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민간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2010년도의 상황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중매체에서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과거에 한국인들이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인이라는 집단에서 중국인이라는 집단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한국대학생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점은 이들 외국인에 대하여 갈등이나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미래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의 통합 한국에 걸림돌이 됨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해서는 성격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특정한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인식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새터민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 집단과 비교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다고 보고한 연구(임성택, 2003; 인태정, 2009)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새터민에 대하여 성격과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한국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한국인이 그들을 무시하고 열등하며 무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미래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북한주민과의 관계가 순탄지만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학생들을 가까운 시간 내에 도래할 다문화 시대의 주역이라고 할 때,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다문화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및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으로서 연구대상자를 대학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에서 표집 함으로서 한국인의 전반적인 인식을 대표하는 연구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차이와 세대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인태정(2009)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에서도 학년과 부모님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에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량의 표집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인식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 진행된 탐색적 요인분석 이외에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작업을 거친다면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고정관념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접변의 시점에 있어서, 현재 한국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인식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정관념의 실체를 규명 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원택, 김병국, 김민진, 김장수, 이내영, 이현우, 이재열, 정원칠, 정한울, 한준 (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동아시아연구원*, 32-36.
- 곽준혁 (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1.
- 김상학 (2002).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1), 169-206.
- 김진희 (2007). 서울 시민의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연구.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2, 1-32.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희자 (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9(1), 255-282.
- 김희자 (2009). 영상매체를 통해 지각된 청소년의 외국인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 *동서언론*, 12(2), 137-164.
- 박영숙, 제롬글랜, 테드 고든 (2008). *유엔미래보고서: 미리가본 2018년*, 교보문고.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자료집*.
- 유명기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 69-98.
- 유승무, 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201, 9(2), 275-311.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혜경 (200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 위원회.
- 인태정 (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339-370.
-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분석. *교육학연구*, 41(3), 275-301.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5.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황미애 (2009). 외국인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의 차별적 태도 연구. *시민교육연구*, 41(3),

- 205-226.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2).
- Babbie, E. R. (2006).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11 ed.): Wadsworth Publishing.
- Bilgic, M. (1976). *Social psychology and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Brown, R. (1988). *Group processes: Dynamics within and between groups*. New York: Ball Blackwell.
- Hamilton, D. L. (1979). A cognitive-attributional analysis of stereotyping. *Advances in Experiential Social psychology*, 2, 53-81.
- Hilton, J. L., & von Hippel, W. (1996). Stereotyp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237-271.
- Jones, J. M. (1997). *Prejudice and racism*(2nd ed.). New York: McGraw-Hill.
- Laumann, E. O. (1956).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 26-36.
- Mayring, P. (2000).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 ·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2), 64-87.
- Taylor, S. E. (1981). A categorization approach to stereotyping. In D. L. Hamilton(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Cogni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for Six Foreigner Groups

DongSu Kim Dowhan Kim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cogni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for six foreigner groups(American, Southeast Asian, Japanese, Chinese, Ethnic Koreans in China, and North Korean Defector). To pursue this aim, 82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se to several open-ended questions. The content of their responses were analysed. it indicated that cognition of Korean undergraduates for foreigners consisted of 6 categories such as appearance and physical attractiveness, character, lifestyle, relations with Koreans, competence, country background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iven these findings, 158 items were constructed and administered to 300 undergraduates to rate the six foreigner groups. Factor analyses showed that factor structure of appearance and physical attractiveness consists of charming appearance, neat appearance and negative appearance. Factor structure of character consists of fluid trait, fixed trait, selfishness and braveness. Factor structure of lifestyle consists of secular attitude, honest attitude, passive attitude and collectivism. Factor structure of relations with Koreans consists of superiority, sense of distance, inferiority and sense of friendship. Factor structure of competence consists of speciality & ability and economic capacity. Factor structure of country background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consists of country condition and social problem. So we found 19 cognition factors for foreigner groups. Fimally, it was found that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significant for each factor score.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historial and cultural contexts.

*KeyWords:* Stereotype attitudes, Recognition on Foreigners, Prejudice, Americans, Southeast Asians, Japanese, Chinese, Ethnic Koreans in China, North Korean Defectors.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06월 0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12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2월 17일

부록

표 1. 외국인의 외모 및 신체적 매력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매력적 외모	아담한 외모	부정적 외모
얼굴이 잘생겼다	<b>.856</b>	.050	.022
몸매가 좋다	<b>.836</b>	.005	.089
매력적이다	<b>.824</b>	.179	-.121
세련되었다	<b>.764</b>	-.024	-.246
예쁘다	<b>.763</b>	.293	-.076
호감형이다	<b>.748</b>	.260	-.117
체격이 크다	<b>.732</b>	-.369	.237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b>.706</b>	-.130	.266
인상이 좋다	<b>.613</b>	.381	-.071
깨끗해 보인다	<b>.511</b>	.294	-.449
아담하다	-.196	<b>.772</b>	-.177
단아하다	.169	<b>.757</b>	-.108
귀엽게 생겼다	.367	<b>.696</b>	-.054
냄새가 난다	-.011	-.129	<b>.825</b>
목소리가 시끄럽다	-.116	.051	<b>.762</b>
나이가 들어 보인다	.148	-.257	<b>.600</b>
고유값	5.75	2.31	2.10
설명량(%)	35.91	14.45	13.15
신뢰도	.91	.67	.64
KMO / 구형성검정치 / 유의확률	.897 / 6550.04 / .000		

표 2. 외국인의 성격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남성성	이기주의	여성성
적극적이다	.770	.164	-.168
자신감이 있다	.769	.186	-.154
활발하다	.747	.030	-.051
열정적이다	.739	.073	-.098
자유롭다	.724	.186	-.202
도전적이다	.698	.135	-.170
능동적이다	.684	.147	-.074
호방하다	.680	-.085	-.002
독립적이다	.667	.156	-.096
개방적이다	.644	.290	-.205
긍정적이다	.640	-.061	.167
대담하다	.600	.066	-.131
합리적이다	.598	.236	.083
용감하다	.579	.048	-.008
개성적이다	.568	.295	-.107
호의적이다	.561	-.166	.377
의지가 강하다	.476	.079	.223
포용적이다	.454	-.271	.395
이중적이다	.060	.766	-.072
야비하다	.018	.752	-.118
계산적이다	.171	.728	-.125
이기적이다	.247	.723	-.196
가식적이다	-.008	.720	-.068
인색하다	-.045	.656	.027
경쟁적이다	.365	.576	-.160
집착이 강하다	.113	.548	.092
고집이 세다	.196	.532	-.013
개인주의적이다	.438	.506	-.289
염치가 없다	.026	.502	-.227
위협적이다	.284	.377	-.206
소박하다	-.231	-.074	.716
착하다	.176	-.382	.678
따뜻하다	.225	-.311	.676
순종적이다	-.315	-.125	.659
정리정돈하다	.136	-.364	.653
겸손하다	-.065	-.013	.649
내성적이다	-.414	.103	.621
순박하다	-.137	-.379	.618
가족적이다	-.042	-.097	.606
세심하다	.051	.267	.583
순수하다	-.062	-.447	.581
소심하다	-.397	.226	.557
고유값	8.79	6.12	5.73
설명량(%)	20.93	14.57	13.63
신뢰도	.92	.88	.88
KMO / 구형성검정치 / 유의확률		.935 / 18771.80 / .000	

표 3. 외국인의 습관에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세속적 태도	성실한 태도	소극적 태도	집단주의 태도
속물근성이 강함	<b>.752</b>	-.089	-.080	.107
반성할 줄 모르는	<b>.701</b>	-.062	-.038	.084
배신을 잘함	<b>.690</b>	-.022	.119	.036
따돌림 문화가 있음	<b>.684</b>	.299	-.078	-.036
타인을 무시함	<b>.678</b>	-.074	-.104	-.204
상술적인 태도	<b>.676</b>	-.262	-.040	.179
성적으로 문란함	<b>.653</b>	.186	-.347	-.176
비도덕적인 행동	<b>.643</b>	-.365	-.030	.019
음주,마약등 중독	<b>.640</b>	-.072	-.342	-.278
폭력적인 태도	<b>.638</b>	-.119	-.027	-.150
인종차별을 하는	<b>.613</b>	.055	-.262	-.296
돈에 대한 집착이강함	<b>.595</b>	-.169	.062	.394
의심이 많음	<b>.576</b>	-.043	.353	.120
불평,불만이 많음	<b>.537</b>	-.350	.243	.043
모방,표절을 잘하는	<b>.480</b>	-.376	.061	.420
질서를 잘 지킴	-.027	<b>.806</b>	-.085	-.042
청결한 습관	-.015	<b>.785</b>	-.162	-.159
세심한 일처리	.035	<b>.753</b>	.023	.180
친절한 행동	-.087	<b>.750</b>	-.251	-.006
매너가 있음	-.098	<b>.686</b>	-.359	-.091
배려하는 태도	-.142	<b>.670</b>	-.219	.051
자기절제력이 강함	-.123	<b>.633</b>	.241	.240
부지런한 습관	-.099	<b>.581</b>	.259	.369
조용함	-.463	<b>.563</b>	.184	-.186
불안해함	-.005	-.059	<b>.781</b>	.025
기죽어 있는모습	-.081	-.094	<b>.755</b>	.059
부적응적인 모습	.030	-.122	<b>.727</b>	-.016
억압적인 태도	-.253	.065	<b>.718</b>	.129
폐쇄적인 모습	.212	.011	<b>.662</b>	.097
감정표현이없음	-.075	-.273	<b>.598</b>	.005
의사표현이 불확실함	-.149	8.43E-005	<b>.597</b>	.112
단결을 잘함	-.070	.104	.159	<b>.737</b>
협동을 잘함	-.152	.267	-.018	<b>.621</b>
자기들끼리 몰려다님	.325	-.281	.179	<b>.537</b>
고유값	6.73	5.34	4.37	2.60
설명량(%)	19.22	15.25	12.48	7.42
신뢰도	.90	.87	.84	.54
KMO/ 구형성검정치 / 유의확률		.910 / 14544.45 / .000		

표 4. 외국인과 한국인의 관계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우월감	거리감	열등감	우호감
그들이 한국인을 무시하는	<b>.870</b>	.034	-.026	-.024
그들이 한국인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b>.779</b>	-.009	-.200	-.009
그들이 한국인에게 비판적인	<b>.701</b>	.117	.335	-.045
경쟁적인	<b>.667</b>	-.181	-.154	-.018
한국인이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b>.626</b>	.087	-.454	.118
한국인에게 배타적인	<b>.620</b>	.306	.274	-.134
한국인과 소통을 잘하지 않음	<b>.491</b>	.363	.256	-.162
어색한	-.073	<b>.799</b>	.127	-.045
거리감이 있는	-.015	<b>.792</b>	.075	-.199
부담스러운	.114	<b>.791</b>	.071	-.164
동화되기 어려운	.190	<b>.694</b>	.168	-.231
거북스러운	.106	<b>.683</b>	.251	-.349
한국인이 그들을 무시하는	-.017	.170	<b>.841</b>	-.189
한국인이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124	.193	<b>.793</b>	-.087
한국인이 그들에게 비판적인	.362	.010	<b>.675</b>	-.226
그들이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160	.374	<b>.630</b>	-.023
우호적인	-.114	-.147	-.215	<b>.765</b>
신뢰로운	-.015	-.188	-.190	<b>.688</b>
친해지고 싶은	.058	-.302	-.305	<b>.667</b>
동질감을 느끼는	-.242	-.020	.131	<b>.639</b>
교류와 협력하는	.146	-.216	-.040	<b>.594</b>
고유값	3.65	3.52	3.03	2.67
설명량(%)	17.39	16.76	14.40	12.69
신뢰도	.72	.86	.64	.74
KMO/ 구형성검정치 / 유의확률		.867 / 8507.81 / .000		

표 5. 외국인의 유능성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특기 및 재능	경제적 능력
유머감각이 있다	<b>.783</b>	.023
운동을 잘 한다	<b>.718</b>	-.041
자신을 잘 가꾼다	<b>.704</b>	.254
배포가 있다	<b>.663</b>	.117
독창적이다	<b>.654</b>	.285
지적능력이 뛰어나다	<b>.639</b>	.329
자기 삶을 개척한다	<b>.573</b>	.320
적응을 잘 한다	<b>.516</b>	.270
장인정신이 있다	.022	<b>.743</b>
일을 잘 한다	.216	<b>.706</b>
장사를 잘 한다	.108	<b>.703</b>
생활력이 있다	.196	<b>.582</b>
기술력이 있다	.430	<b>.515</b>
고유값	3.78	2.60
설명량(%)	29.06	19.96
신뢰도	.84	.74
KMO/ 구형성검정치 / 유의확률	.868 / .3661.15 / .000	

표 6. 외국인의 국가배경 및 환경조건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국가적 조건	사회문제
강대국이다	<b>.856</b>	-.203
경제성장이 빠르다	<b>.835</b>	.088
다양한 문화를 가졌다	<b>.780</b>	.123
선진국이다	<b>.758</b>	-.383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b>.735</b>	.239
관광하기 좋은 나라	<b>.703</b>	-.132
빈부격차가 크다	-.021	<b>.827</b>
부정부패가 심하다	-.175	<b>.754</b>
사고재해가 많다	.135	<b>.662</b>
고유값	3.70	1.98
설명량(%)	41.07	21.95
신뢰도	.86	.65
KMO/ 구형성검정치 / 유의확률	.788 / 3215.21 / .000	